

'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주님 '

짧은 머리, 금테안경, 아담한 키에 꼭 다문 입술, 바쁜 걸음걸이로 사무실에 들어온 마포서대문 공동체 누가 1순 정성원 순장. 얼핏보기에도 바지런하고 정직한 학자의 모습이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그는 아내 김옥진 성도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병현, 병효 두 아들이 있다.

'난 꼴찌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하는 순장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정성원 순장의 소망이다.

“우리 공동체에는 훌륭한 선배 순장님들이 많다”며, “우리 공동체 제일 꼴찌 순장도 이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시며 이재훈 목사님께서 추천하신 듯 하다”며 계면쩍어 한다. 이 목사는 “정성원 순장은 목회자처럼 순원들 한 영혼이라도 소홀히 함이 없다”고 했다.

누가 1순은 많이 모이면 12명, 보통은 8 ~ 9명이 모인다. 작년 2월부터 누가 1순장이 된 정성원 순장은 한 사람의 변화가 소중함을 자신을 통해 확인했기에 어떤 순원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그가 교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은 마흔살이 되던 해인 '99년 8월이었다. 사회학을 공부하며, 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 있을 때였다. 오랜 학업으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무릅쓰고 어렵게 공부하며 '논문만 끝나면'하고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런데 다니던 연구소가 폐쇄됐고 갑자기 실업자가 됐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도 어려웠다. 아무 가능성도 소망도 없어보였다. 의지할 곳이 없었다. “나이 마흔까지 세상적인 술친구밖에 없었어요.”

그때 후배로 부터 “형 교회 나가봐요. 손해볼 것 없잖아”라며 난생 처음 전도를 받았다. 기복신앙은 정순장과 아내 김 성도가 가장 '혐오'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아내를 설득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이제 기대할 분은 하나님 뿐이다. 우리의 마지막 끈이다”

흔들리는 마음을 교회에 붙잡아 두고 싶어 온누리교회에 오자 마다 새신자성경공부에 등록했다. 7주를 마치고 난 후 경배와찬양집회에서 주님을 만났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의 귀를 통해 들리는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그의 심장을 전율하게 했다. 아내에게도 잘못했던 가장으로서 고민과 막막한 한숨도 주님이 다 들으셨다는 얘기에 마음 깊숙이 안도와 평안이 밀려왔다.

어렵게 만난 하나님, 포기하지 말자

그후 “어렵게 만난 하나님, 쉽게 믿음의 길을 포기 하지 말자”라고 각오를 했다. 사회학자의 예리한 판단과 비판정신은 저 멀리 던져버렸다.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기 전에 판단을 유보하자”고 결심했다. 그후 정 순장의 인생은 달라졌다.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 아니다. ‘이전엔, 하루종일 짜증스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행복하다. 순간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면, 힘이 솟고 기뻐다. 1년간 누가1순에 있으면서 노기용 순장, 김영천 순장을 만났다. “제가 순장이 되면 두분의 반 만큼만 하자고 결심했었어요’

그후 순장이 되고 첫 순모임 때였다. 순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떨리고 자신이 없었다. 한달간 기도부터 성경공부에 대한 것 까지 해야할 모든 말을 다 써서 순모임에 참석했다. 그후 매주 월요일, 수요일 두번 순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월요일에는 금요일 순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순원들의 안부를 묻고 중보기도 제목을 나눴다. 수요일에는 금요일 순모임 참석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제 역할은 순원들이 순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죠. 이후는 하나님이 하시니...’ 매주 수시로 이메일을 띄우며 순원들에게 섬세한 관심을 보내는 그의 순원사랑은 중보기도에 대한 그의 고백에서 더 잘 알 수 있다.

“어려운 순원을 위해 돈을 주는 것보다 그분을 위해 새벽기도에 나가 걱정기도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걸 알았다”며 “노력하지만 늘 기도에 자신없는 순장일 뿐입니다”고 말한다.

또한 정 순장의 순원들에 대한 관심은 순원들의 11명 아이들의 이름과 신상명세까지 알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아이들의 생일에는 꼭 편지와 카드를 띄운다. ‘순원을 위해 기도하는 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의 소망에 하나님께서는 무어라 말씀하실까?

신혜림 hellina@onnuri.or.kr

* 출처 - 은누리신문